

최순실, '정유라 이대 특혜' 징역 3년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정씨의 이대 특혜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단초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권(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원준(47)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최씨가 정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김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전하고 이후 남궁 전 차장과 최 전 총장에게 차례로 전달해 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궁 전 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정씨가 비선실세 정윤희씨의 딸이라는 사실과 정씨 선발이 자신과 총장의 뜻임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밝혔고 실제 면접 결과 정씨가 경쟁자들에 비해 비정상적인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남궁 전 처장은 자신과 정윤희씨, 최 전 총장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면접평가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또 "입학 업무가 최 전 총장의 권한에 속한다 해도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신입생 모집은 교무위원들에게 각 위임된 바 독립적 업무에 속해 최 전 총장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최씨가 청담고 교사에게 돈을 준 뇌물죄와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의 청담고 시절 교사에게 학사 편의를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

대법 "업무 공정성 방해...입시비리 공모 인정"

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남궁권 징역 1년6월

전 학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를 특혜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김 전 학장과 이 교수 등은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 특혜를 봐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하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스



김광석길 쿨링포그 가동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대구지역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15일 오후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 다시그리길에 설치된 쿨링포그(Cooling fog) 시스템이 가동 되고 있다.

2학기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1차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접수를 17일부터 6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15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내 1회에 한해 인정된다.

1차 신청을 하면 고지서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돼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부담

이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과 학자금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설했다.

뉴스스

주민등록 등·초본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발급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5일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

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등본 등 증명서는 2700여종이다.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됐다.

행안부는 2019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

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스

가자지구서 최루가스 8개월 아기 사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군과 시위대의 충돌 사태로 생후 8개월 된 팔레스타인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 보건부는 15일(현지시간) 전날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이 살포한 최루가스로 8개월짜리 영아가 숨졌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관영 WAFAT통신이 보도했다.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무차별적으로 가자지구 쪽으로 최루가스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숨진 아기의 가족들이 시위 지역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 머무르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로써 전날 가자지구 소요 사태에 따른 사망자 수는 59명으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고 전해졌다. 숨진 이들 외에도 팔레스타인인 2700명 이상이 다쳤다.

팔레스타인인들은 14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개소일에 맞춰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작년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데 이어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인 이날 대사관 이전을 강행했다.

가자지구에서는 15일에도 '나카브의 날'(이스라엘 건국에 따른 팔레스타인인 추방을 기억하는 날)을 맞아 시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반이스라엘 저항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인 예루살렘은 1947년부터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美 10남매 학대 부부, 비비탄 총으로 상해 입혀

자녀 10남매를 감금 학대해 올 3월 체포된 캘리포니아 페어필드 부부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플라스틱 탄환 총을 발사해 타박상과 화상, 관통상과 멍 등 수없이 상처를 입혔다고 경찰이 시신로 옮겨진 자녀 한 명의 증언을 인용해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경찰의 사본 헨리 담당경찰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고문은 "순전히 가혹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었다고 말했다. 페어필드 경찰서의 그레그 헨리 서장도 이런 폭행은 지난 6주 동안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이 10명의 자녀들이 집안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루 바닥에는 상한 음식, 동물과 인간의 분변 등 오물이 그득했고 집안 일부는 불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아버지 조나선 엘런은 14일 고문과 아동학대 혐의 등 중죄로 법정 심문을 받았다. 아내 아이나 로저스는 아동에 대한 방위 혐의로 역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로저스는 14일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3월에 경찰이 집에 온 것은 12살짜리 자기 아들이 귀가하지 않아서 자신이 신고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날 발견된 9명의 아이들이 "끔찍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판단했다. 로저스는 그것은 자기가 아들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은 상태를 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로저스는 3월 31일 자녀에 대한 방위혐의로 체포되었지만 1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증언을 들은 뒤 경찰이 체포한 아버지 조나선 엘런은 아동학대와 고문, 잔혹행위 등으로 체포되었고 1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되어 있다.

멕시코서 사상 최대 2천억원대 송금 오류

멕시코 은행간 전산망에서 1억8000만 달러(1925억 1000만 원)에서 2억 달러(239억 원)가 전산 송금이 잘못돼 사라지는 사상 최대의 송금 오류가 발생,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구매와 전자 결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금융당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기관은 이번 은행간 송금 오류 발생이 외부 해커들에 의한 것인지, 은행 전산망 내부의 범행이나 오류에 의한 것인지도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피싱 메일이나 채무 추심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흔히 은행의 로고나 이니셜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의 보안 기준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다.

이번 일로 은행예금주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은행들은 사리진 돈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뉴스스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는
건강검진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일반
건강검진

암·내장기관
건강검진

당뇨·
고혈압
건강검진

청력·
시력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항목	2015. 1월 목표	현재 실적	향후 목표
건강검진율	42%p	향상	향상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18%p	감소	감소

*본표는 건강검진 참여율에 따라 미리 정한 건강 목표치입니다.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